

2024. 6. 13

Global Macro Team

양지성  
Economist  
jisung.yang@samsung.com

구민정  
Research Associate  
mj.gu@samsung.com

## EU-중국 무역 분쟁 update

EU, 중국 EV에 추가 관세 예고; 중국 대응 조치에 주목

- EU-중국 간 무역 분쟁, 전기차에 국한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수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은 보복관세로 대응할 전망. 유럽의 대중국 주력 수출품목인 독일 자동차, 프랑스 주류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 하반기 중국의 대응 수준에 주목할 필요

12일, EU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EU가 중국 전기차 업계가 부당한 보조금으로 경쟁 우위를 점했다고 판단한 결과다. EU의 중국 전기차 추가 관세 관련, 매크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추가 관세 세부 내용:** 중국산 전기차 전반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것. 관세 적용 시점은 7월. 제조업체별 적용 관세는 상이. 기존 관세율 10%에 더해 BYD는 17.4%, Geely는 20%, SAIC는 38.1%의 추가 관세를 적용. EU 반보조금 조사에 협조한 여타 전기차 생산업체 전반에는 21%,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전기차 업체 전반에는 38.1%의 추가 관세가 적용됨.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적용되는 최대 관세율은 48.1%로 상승.

중국에서 생산하고 EU로 배송하는 Tesla, BMW, Renault 등 서구 제조업체들도 비용 상승에 직면. 이들은 평균적으로 21%의 추가 관세를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Tesla의 경우 별도의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추후 결정될 예정.

- **추가 관세 부과 배경:** EU와 중국의 전기차 무역 분쟁을 촉발한 직접적인 트리거는 EU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반대 조사. '23년 9월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시장은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로 넘쳐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중국 전기차에 대한 조사를 발표한 바 있음. 중국 전기차가 유럽에 빠른 속도로 진출하면서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의 중국 점유율 확대, 대중 자동차 무역 수지 흑자의 빠른 축소가 나타났기 때문.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EU와 중국 간 무역 분쟁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벤트는 아님. 현재 전기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무역 분쟁은, 장기간에 걸쳐 변화한 EU-중국 관계의 연장선에서 해석할 필요. EU와 중국은 과거 제조업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었으나, 점차 제조업 경쟁/대체 관계로 변화했으며 이에 따라 제조업 분쟁의 여지 또한 장기간에 걸쳐 높아져 왔음. '19년 이후 EU가 중국을 "파트너이자 경쟁자, 그리고 시스템적 라이벌(partner, competitor and systemic rival)"라는 다소 모순적인 관계로 규정하게 된 것도, '23년 이후 중국과의 경제 및 외교 부문에서 위험 제거('de-risk')를 추구하게 된 것도 과거와 달리 상호간 이해 관계가 복잡해졌다는 점을 보여줌. 현재의 무역 분쟁은 EU-중국 관계 변화, EU의 제조업 위기의식 등에 기인.

- **추가 관세의 실효성:** EU의 추가 관세는 미국의 추가 관세와는 다른 결과 가져올 것. 최근 발표된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의 경우, 관세율 상승 폭은 높지만 배터리를 제외하면 대상 품목들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아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 '23년 중국의 대미 전기차, 태양광 패널 수출 규모는 각각 3.6억, 0.9억 달러 수준에 그침. 따라서 미국의 관세는 현재의 교역 양상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우며, 중국 업체의 미국 진출을 제약해 미국 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음.

반면, 유럽의 경우 중국과 경제적으로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관세의 영향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

(다음 페이지에 계속)

###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 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중국의 3대 신수출품(배터리, 태양광 패널, 전기차)의 품목별 총수출액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미국은 중국 배터리 수출의 21%,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수출의 1%를 차지하는 데 그치지만, EU는 중국 배터리 수출의 36%, 태양광 패널 수출의 41%, 전기차 수출의 39%를 차지. 즉, EU가 전기차 등 중국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높일 경우, 현재의 교역 양상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준. 가격 변화만 고려할 경우, 단기적인 중국 전기차의 EU 수출 실적은 10% 이상 감소할 가능성도 상존.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추가 관세가 중국 전기차 수입을 전면 차단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됨. 추가 관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기차의 유럽 전기차 대비 가격 경쟁력 우위는 지속될 가능성(Rhodium group). 중국 내 서구 제조업체 역시 추가 관세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중국 전기차 업계에 대한 타격을 완화할 수 있음. 잠정 관세는, 중국 전기차업체의 유럽 내 점유율 확대 속도를 2~3년간 더디게 만드는 기능에 그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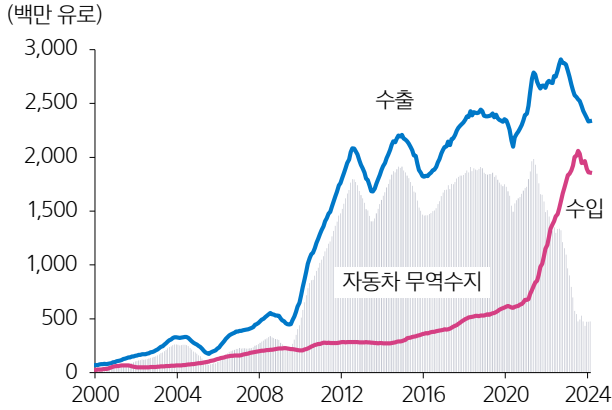
- **중국 제조업체의 대응:** 제조업체들은 유럽 현지 공장 건설로 대응. Tesla, BMW등은 독일 내 공장 생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지속 중. BYD는 '24년 초 헝가리 공장 착공했으며, 현재 2공장을 검토하는 상황. Volvo는 중국 생산 거점을 벨기에로 이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 당국의 대응:** 중국은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음. 유럽의 대중국 주류 수출품목 및 흑자 품목들이 주요 후보. 독일 자동차, 프랑스 주류, 유럽 전반의 항공 그리고 유제품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 '24년 1월, 중국은 이미 프랑스 브랜디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에 나선 바 있음. 유럽의 대중 수출에서 중국의 관세 위협품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항공, 유제품, 와인 등은 전체 대중수출에서 3%를 차지) 개별 산업 관점에서 보면 대중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향후 관련 부문의 반발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프랑스 주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이르며, 독일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중국 매출 의존도는 20%를 상회.
- **하반기 주목할 변수:** 종합하면, 중국의 보복 관세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하반기 중 중국과의 무역 분쟁 노이즈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다만, 중국의 보복 관세 대상 품목, 보복 관세의 수준, 발표 시점 등은 현재 미지수. 중국이 보복관세를 발표하는 경우, 대상 품목의 범위 및 관세 인상 정도에 따라 경제적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 중 발표되는 구체적인 내용에 주목해야. 또한, 현재의 무역 분쟁이 전기차에 국한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 품목에 걸쳐 수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

**EU-중국 무역 분쟁 관련 Timeline**

날짜	주요 내용
'23.9.13	EU 집행위,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 발표. 종료는 '24년 7~11월 예정.
'23.9.19	분데스뱅크, 독일 재계에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 축소 권고
'23.9.26	EU-중국, 무역 긴장 완화를 위한 수출 통제 메커니즘 구축에 합의
'23.10.7	EU, 중국 풍력 터빈에 대한 보조금 조사 고려
'23.12.8	중국 외교부, 중국 전기차의 유럽 진출은 보조금이 아닌 혁신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 중국 외교부, 중국 산업에 일방적인 제재가 가해질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24.1.6	중국, 무역 분쟁 심화로 프랑스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발표
'24.5.7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게 자국 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24.5.10	EU,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유럽 기업이 구조적인 쇠퇴 위험에 직면했음을 경고
'24.5.21	엘런 미 재무장관, 중국 수출 제재에 유럽이 동참할 것을 촉구
'24.6.12	EU, 잠정적인 관세 인상안 발표
'24.7.4	잠정적인 관세 인상 발표 마감일
'24.11.2	최종적인 관세 결정 마감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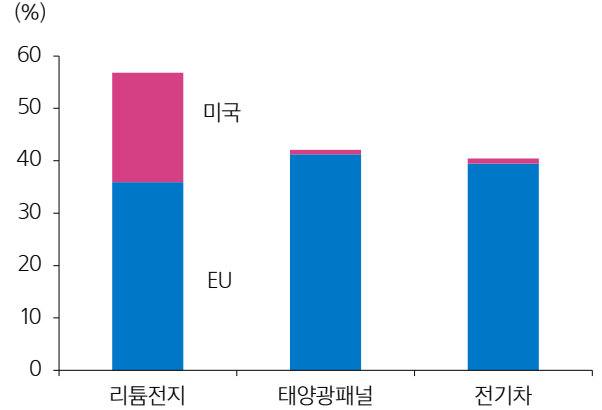
자료: 다수 언론, 유럽집행위, 삼성증권 정리

유로존의 대중국 자동차 수출입 및 무역 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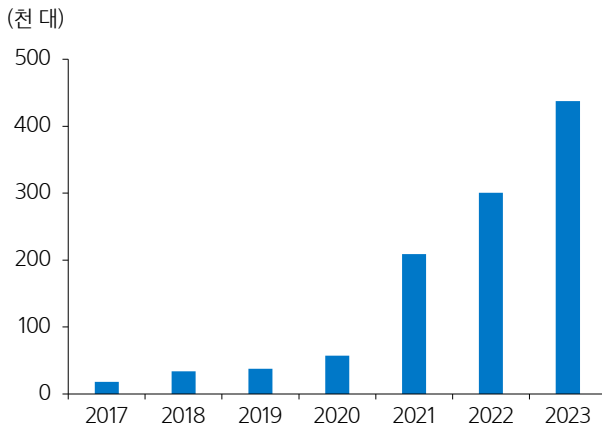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중국의 3대 신수출품 수출 비중: vs 미국,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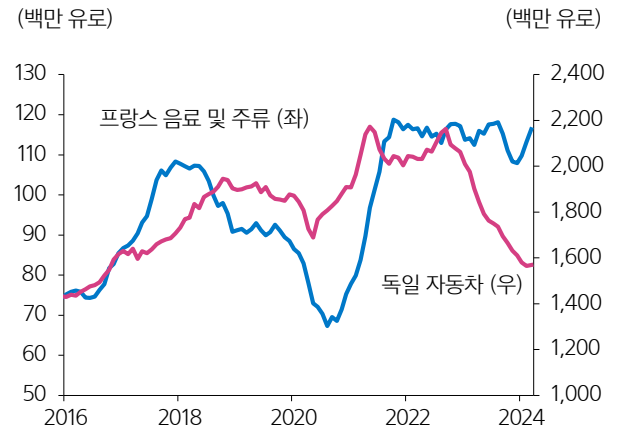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EU의 중국산 전기차 연간 수입 물량



자료: Eurostat

독일 자동차, 프랑스 음료/주류 대중국 무역 수지 추이



자료: Eurostat

## 삼성증권

###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